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75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09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지금껏 알려져 있는 지식과 관념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면, 사람들은 납득할 만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설명을 모색하게 된다. 가추법(假推法)은 관찰된 사실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미 ㉠통용되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전제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는 개연적 추론이다. 가추법을 정립한 철학자 퍼스는 다음의 논증을 사례로 들어 가추법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책상 위에 한 움큼의 하얀 콩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 콩 옆에 놓인 자루를 보고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결과) 이 콩들은 하얗다. . . . . (ㄱ)
- [A] ┌ (규칙) 이 자루에 들어 있는 콩은 모두 하얗다. . . (ㄴ)
- └ (사례)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 . . . . (ㄷ)

위 추론의 출발점인 '결과'는 관찰된 사실로서, 일반적 규칙에 해당하는 가설이 제시되고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수공할 수 있는 사실이다. 관찰된 사실은 참임이 전제된 규칙과 결합됨으로써 규칙의 한 사례로 귀결된다. 책상 위에 놓인 콩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콩 옆의 자루를 보고 자루 안의 콩이 모두 하얀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며,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책상 위의 하얀 콩은 이 자루에 든 콩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퍼스는 연역법 및 귀납법과의 비교를 통해 가추법의 특징을 구체화하였다. 연역법은 규칙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 추리이자 추론의 결과가 규칙의 해설이 되는 해설적 추론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귀납법은 특정한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하는 종합 추리이자 부분에서 전체, 특수 사례에서 일반으로 향하는 확장적 추론으로, 연역법과 달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포함한다. 퍼스에 의하면 가추법은 한 유형의 사실들로부터 도약하여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실들을 도출하는 추론 방식이라는 점에서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추론에 ㉣해당하지만, 귀납법은 주어진 사실들의 집합으로부터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을 추론해 낼 뿐임에 반해 가추법이야말로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진정한 확장에 기여하는 추론이라고 하였다.

가추법에서 가설의 형태로 제시되는 규칙은 추론의 과정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 진리로서 주어지는 연역법의 규칙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퍼스는 '자연법칙', '일반적인 진리'와 함께 '경험' 등을 규칙의 자리에 둘 수 있다고 하여 가추법의 '규칙' 범주에는 경험적 근거, 직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진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는 또한 관찰된 사실과 설정된 가설의 결합은 이 둘에서 다루는 대상들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기인하며 이는 논증이 다루는 대상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리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연역법이나 귀납법과 달리 가추법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결과 이상의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을 기술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째서 그러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의해 추론의 목적 달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퍼스는 탐구를 '의심의 자극에 의해 야기된 것이자 믿음의 상태를 획득하려는 투쟁 과정'으로 규정하고 가추법은 이 과정을 관통하는 논리라고 하였다. 가추법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부터 탐정의 추리에까지 널리 활용되는 추론 방식으로, 이는 그간 직관이나 심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추측의 과정에 논리성을 부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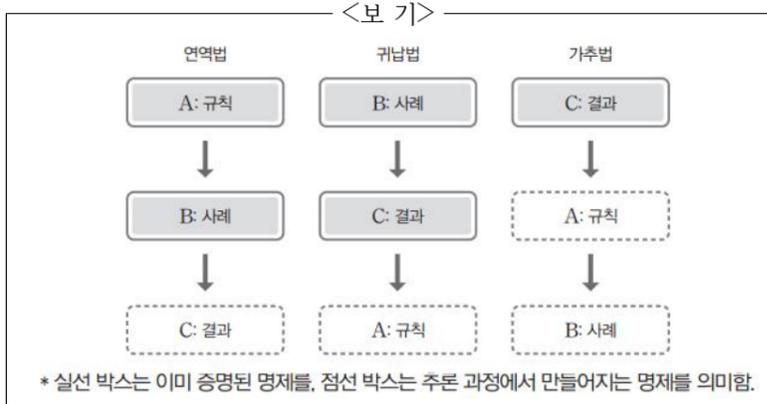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용성을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추론 방식 간의 우열을 판단하고 있다.
- ② 특정 추론 방식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고 현대적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추론 방식의 이론적 배경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반된 두 추론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다른 추론 방식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특정 추론 방식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과 (ㄴ)의 대상은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다.
- ② (ㄴ)이 참임이 전제될 때 (ㄱ)을 수공할 수 있다.
- ③ (ㄱ)과 (ㄴ)이 결합되어 도출된 (ㄷ)은 (ㄱ)을 (ㄴ)의 사례로 귀결시킨다.
- ④ (ㄷ)이 (ㄱ)의 이유로 기능할 때 이 추론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⑤ (ㄷ)은 (ㄱ)과 (ㄴ) 간의 유사성과는 별개로 도출된 새로운 유형의 사실이다.

3. <보기>는 윗글에 제시된 추론 방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역법의 C는 A를 B에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 ② 귀납법의 B, C 간에 발견되는 유사성은 A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③ 연역법은 해설적 추론으로, 연역법의 C는 A가 의미하는 범위 이상의 지식을 도출하지 못한다.
- ④ 연역법의 A와 달리, 가추법의 A에는 경험적 근거, 직관, 특수 상황에서의 진리 등이 포함된다.
- ⑤ B와 C를 통해 A를 도출해 내는 귀납법과 C에서 출발하여 B를 도출하는 가추법은 부분에서 전체로 향한다는 점에서 확장적 추론으로 분류된다.

4. <보기>의 ㉠와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말 우스울 정도로 간단해서 설명하는 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라네. 하지만 그건 관찰과 추리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 나는 자네(왓슨)의 구두에 황토 흙이 묻어 있는 걸 관찰을 통해 알았네. 그런데 워모어가(街) 우체국 건너편에는 도로 공사를 하느라 길을 파헤쳐 놓아서 흙이 드러나 있지. 그 흙을 밟지 않고선 우체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 유난히 붉은 황토는 내가 알기로는 이 근방에서 거기 말고는 없네. 여기까지가 내가 관찰한 것일세. 나머지는 추리해 낸 것이지.”

.....

.....

코넬 도일의 소설 「네 사람의 서명」에서 인용된 셜록 홈스의 위 대사는 이중으로 진행되는 가추법의 추론 과정을 함축한다. 하나는 ‘왓슨의 구두에 흙이 묻어 있다.’라는 관찰한 사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진행되는 추론이며, 다른 하나는 앞의 결과에 포함된 ‘흙’이 ‘유난히 붉은색을 띤 황토’로 구체화 된 관찰 결과에서 출발하는 추론이다. 전자는 ‘비포장도로를 걸어 다니면 구두에 흙이 묻는다.’라는 규칙을, 후자는 ‘( ㉠ )’라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왓슨’이라는 사례에 적용한 설명을 도출한다. 후자에서 설정된 규칙은 전자의 그것과 달리 홈스의 경험적 근거에 의지하며, 특수성이 강하다. 전자의 추론에서 결과와 규칙이 지닌 ‘( ㉡ )’(이)라는 유사성에 기반하여 ‘나머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핵심이 ‘왓슨은 비포장도로를 걸어 다녔다.’로 형성되며, 이 문장은 다시 후자의 추론에 의해 ‘왓슨은 부근의 도로가 비포장 상태인 워모어가 우체국을 다녀왔다.’라고 구체화되어 왓슨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	㉡
①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의 황토는 유난히 붉은색을 띠고 있다.	비포장도로의 흙
②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의 황토는 유난히 붉은색을 띠고 있다.	왓슨의 구두
③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의 황토는 유난히 붉은색을 띠고 있다.	흙이 묻은 구두
④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은 도로 공사를 하느라 흙이 드러나 있다.	비포장도로의 흙
⑤ 워모어가 우체국 부근은 도로 공사를 하느라 흙이 드러나 있다.	흙이 묻은 구두

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일이 처리되다.
  - ② ㉡: 옳다고 인정하다.
  - ③ ㉠: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다.
  - ④ ㉡: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다.
  - ⑤ ㉠: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되다.